

(서식 3)

자기소개서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I 시작하는 말

농사를 지으시는 가난한 부모님, 작은 여자 아이였던 저는 자주 아파서 부모님께 많은 근심을 드렸습니다. 여섯이나 되는 자녀 교육을 위해, 농사일로만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아버지는 번개탄 공장, 어머니는 주변 염색공장에서 일하시며 저희를 뒷바라지하셨습니다.

1986년 대학에 입학한 저는 연극동아리(이랑)에 가입하여 배우 및 조연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무대공연을 선보였고, 3학년때는 학생회 임원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통일문제, 민주화, 약자들의 삶에 대한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1992년 9월 1일 산골 속 ○○초등학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받던 시기는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존중하고, 토의 토론 협력수업’을 중시하는 교육활동으로 변해가는 시기였습니다.

11명의 산골 아이들과 함께 학교 근처의 산들을 탐방하며, 가재를 잡고, 감과 밤을 줍기도 하고, 다슬기를 잡으며 보냈던 초임 시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했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글로 담아두고자 학급문집으로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산속에서 중등 교장단 선생님들을 만나 ‘교육이 살아있어요.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뻘뻘했습니다.

II 지원 동기

‘존엄 · 밝음 · 사랑’이라는 소양서초등학교 철학을 접하고, 처음 교단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설렘으로 ‘다시 한번 날아오르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전주00초 · 익산00초에서의 혁신학교와 전주00초의 전북 미래학교의 철학은 소양서초의 학교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서로의 멋진 모습을 맘껏 발산하며’, ‘자신의 소리를 내고’, ‘모두가 따스하게 존중받는 학교’ 그 속에서 ‘존엄 · 밝음 · 사랑’의 철학은 꽃피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글을 잘 쓰는 작가 ·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는 오카니스트가 되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소양서초의 학교 특색 사업인 독서교육과 노력 중점 사업인 예체능 교육 심화는 저의 전문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제가 쌓아온 노력들과 만난다면 더욱 그 빛을 발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 1) - 아이들의 삶을 엮어 만든 학급 문집 7권,
- 학생들과 함께 만든 시집 ‘꿈꾸는 작은 작가들’
- 교사들과 함께 엮어 만든 시집 ‘건빵시인과 시시한 언니들’
- 지역민들과 함께 만든 산문집 ‘내 인생의 전주記’
- 오카리나 학생 및 학부모 동아리지도, 오카리나 1급 지도자 자격증, 코리아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단원

III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양서등학교는 이미 학생, 선생님, 학부모, 지역사회가 ‘존엄 · 밝음 · 사랑’의 학교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충만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생각과 환경 속에 생활해 온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 머무는 곳이 학교인 만큼 구성원 개개의 생각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더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인간관계 맺어가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배려, 존중, 공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안다는 것은 세상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²⁾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름, 사물 이름, 구성원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의미 있는 교감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소양서초의 구성원으로서 교감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스한 미소 속에, 서로 이름 불러주기를 통해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둘째, 모두가 역동적으로 ‘나됨을 발휘하는’ 교육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주도적으로 살아보아야, 어른이 되었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동아리, 다모임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겪게 되는 실패와 고됨,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장을 아이들에게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 또한 하고자 하는 일이 관리자에 의해 제지당할까 두려워 멈칫하게 된다면 학교의 발전은 항상 제자리일 것입니다.

‘실패로 끝난 시도나 노력을 칭찬하자’³⁾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자기 계발을 위한 불가불가피한 단계입니다.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의 기량을 소신껏 발휘하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생활 속의 여유를 찾고 즐겼으면 합니다.

예체능 감수성은 지친 삶에 휴식과 위안을 주고 풍요롭게 합니다. 어릴 적 길러진 예체능 감수성은 어른이 되어서 다양한 취미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소양서초에 근무하는 분 모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량과 더불어 제가 가진 능력을 함께 보태어 집단지성의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할 때 완벽을 추구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기준이 너무 강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흥미를 잃게 하거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서로를 좀 더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 갖기를 희망합니다.

넷째, 소양서초 교육이 아이들의 삶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서산대사의 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를 살펴보면, “눈 덮인 들판을 갈 때는(踏雪野中去) 모를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不須胡亂行).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今日我行蹟)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될 것이니(遂作後人程)”⁴⁾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생각하며 어른들이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걷고 있는지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2) 마흔에 읽는 우화

3) 마흔에 읽는 우화

4) 서산대사의 시

IV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미래 인공지능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불분명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분명한 미래를 대비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필연적입니다. 스마트폰, 테블릿, 컴퓨터에 하루 종일 과몰입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출발점은 어디이지, 어떤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소양서초는 이런 모습을 갖추어 가겠습니다.

1. 믿음을 바탕으로 협력과 소통이 있는 민주적인 학교

학생들의 다모임활동과 자율동아리 활동, 학교중요 사안에 참여 기회 확대
교직원회의 의결기구화,

학부모 동아리 및 학부모회의를 통한 학교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학교의 제반 의사결정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2. 교실 수업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아이들의 기초 · 기본 학습력 신장,

‘존엄 · 밝음 ·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함양,

‘나 됨을 찾아가는 꿈끼 진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맘껏 발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교직원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는 학교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동아리 활동,

쉽과 여유를 즐기는 문화 체험의 날,

교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 경감 노력으로

선생님의 다양한 수업 방식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으로 꼭 가보고 싶은 소양서초

특색있는 놀이와 학습 공간,

음악과 쉽이 있는 여유 공간,

교육공동체가 함께 어울리는 아동친화적인 교육환경으로

학교 공간을 재배치하며 효율성을 높여 가며,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 ·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꿈키움 놀이공원 같은 소양서초, 학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내 집 같은 소양서초, 가르침의 보람을 느끼는 선생님들의 소양서초”를 꿈꾸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 배우고, 스스로 결정하며 ·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